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6.(금) 08:00 배포 2026. 11. 6.(금) 08:00

‘2026 코리아시즌’, 태국·베트남에서 ‘케이-컬처’ 빛나다

- 방콕과 하노이에서 창작 발레, 밴드, 클래식, 미디어아트로 ‘케이-컬처’의 외연을 넓히고, 현지 예술인 협력 강화… 누적 39,917명 관람·참여
- ’27년 ‘케이-컬처 브리지 프로젝트’ 추진, 공동 기획, 창·제작 등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 주태국한국문화원(원장 이선주),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박찬아)과 함께 태국과 베트남에서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2026 코리아시즌’의 주요 기획행사에 현재까지 39,917명이 참여하거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2026 코리아시즌’은 올해 5월부터 창작 발레, 밴드 음악, 클래식, 미디어아트 전시 등을 선보이며 케이팝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태국과 베트남 현지에 알리고 있다.

‘코리아시즌’은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과 교류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서 연중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사업이다. 올해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화교류 협력국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한국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부터 현지 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까지 폭넓게 마련했다. 특히 주태국한국문화원의 이전 재개관과 주베트남한국문화원 개원 20주년을 계기로 그 의미를 더했다.

태국·베트남에서 창작 발레 ‘갓’ 1,650명 관람, 한국 전통문화의 새로운 매력 전달

올해 ‘코리아시즌’은 지난 5월, 한국의 전통 모자인 ‘갓’에 담긴 상징과 정신성을 현대 발레의 언어로 재해석한 윤별발레컴퍼니의 창작 발레 ‘갓(GAT)’으로 시작을 알렸다. 5월 23일, 태국 방콕 시암 픽 카네 공연장과 27일, 베트남 하노이 호금오페라하우스에서 현지 관객 각각 934명, 716명 등 총 1,650명이 한국 전통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만났다. 공연장에서는 갓을 소재로 한 전시·체험과 전문가 연수회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한국·현지 가수가 함께한 '케이-라이브 페스티벌'에 34,465명 찾아, 케이팝을 클래식으로 재해석한 협연에도 9백여 명 참여

10월에 개최한 '케이-라이브 페스티벌(K-LIVE FESTIVAL) <밴드: 에이지(BAND:AGE)>'에서는 한국과 태국·베트남의 음악인들이 한 무대에 올라 음악적 개성과 에너지를 선보였다. 10월 17일, 혁오·원위(ONEWE) 등 한국 가수와 태국의 페이퍼 플레인즈(PAPER PLANES) 등이 참여한 태국 방콕 공연은 6,101명이 관람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베트남 하노이 공연에는 큐더블유이알(QWER)과 실리카겔, 터치드 등 한국 가수와 베트남의 호앙 중(Hoàng Dũng), 마우 느억 밴드(Màu Nước Band) 등이 참여했으며 총 28,364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11월 5일, 하노이 호금오페라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에스엠 클래식스(SM CLASSICS)와 베트남국립교향악단(VNSO)이 협연한 '에스엠 클래식스 라이브 인 하노이(SM CLASSICS LIVE in HANOI)'가 열렸다. 레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Feel My Rhythm)',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 익숙한 케이팝을 오케스트라 선율로 재해석해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만남을 선보였다. 총 9백여 명이 참여한 이번 클래식 행사에서는 공연뿐 아니라 음악을 매개로 한 '명인 강좌(마스터클래스)' 등 교육 프로그램과 '토크 콘서트' 등 교류 행사를 함께 운영해 현지 관객과의 음악적 접점을 확장했다.

한국 전통 회화에 담긴 수호와 평안, 풍요를 향한 염원,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소개

한국의 전통 이미지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특별전시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민족학박물관에서는 10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고궁박물관의 작품*을 활용한 전시 '우리 곁의 생명들'을 개최한다. 호랑이와 동식물, 자연에 담긴 한국인의 수호와 평안의 마음을 전통 회화와 영상, 미디어아트로 풀어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 개막일에 375명이 관람하는 등 개막 주간에 총 2,907명이 방문해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

* 베트남 전시 주요 작품: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 신(神)나다>, <작호도>, <신선도>, ▲국립현대미술관 <나비처럼-암탉과 병아리>, ▲국립고궁박물관 <빛으로 그린 하루>

태국에서는 11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주태국한국문화원에서 전시 '바람의 풍경'을 선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어흥, 호랑이>와 <강산무진도> 등 호랑이와 산수를 소재로 한 실감 영상을 통해 한국의 옛 그림에 담긴 평안과 풍요의 염원을 조명하고, 현지 관객이 자신의 삶과 소망을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내년 '케이-컬처 브리지 프로젝트'로 확대·개편,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협력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2027년부터 '코리아시즌', '상호문화교류의 해',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KORE·A·ROUND CULTURE)' 등 3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확대·개편한 '케이-컬처 브리지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기존 3개 사업이 각각 축적해 온 정부 간 종합적인 문화교류, 전략적 국가에서의 '케이-컬처' 집중 확산, 국내외 문화예술인·기관 간 공동 기획, 창·제작 등 강점을 연계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전략성과 쌍방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양국 문화예술인·기관의 공동 기획·창작, 문화예술의 상호 교류, 미래세대 교류 및 후속 협력 등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올해 '코리아시즌'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공연·전시를 선보이고, 현지 예술인과 함께 무대를 만들며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내년에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중점 협력국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기관이 함께 기획·창작하는 쌍방향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하반기 주요 행사 포스터 및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국제문화사업과	책임자	과장	정슬기 (044-203-3341)
		담당자	사무관	최가람 (044-203-335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인공지능 학습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